

## 군중인가 군대인가(출 13:17-22)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군중이 아닌 군대

이스라엘은 이제 막 430년간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군중이 아닌 ①\_\_\_\_\_로 보셨다(출 12:41). 하나님은 출애굽 행렬을 '군중의 피난 행렬'이 아니라 '①\_\_\_\_\_의 행군 대열'로 보셨다. 군중은 쉽게 모이고 흩어지지만, ①\_\_\_\_\_는 모으기는 어렵지만 한 번 모이면 쉽게 흩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군중은 방관자이지만 ①\_\_\_\_\_는 참여자다.

프랑스의 군중심리학 대가인 귀스타브 르봉은 군중심리의 특징을 익명성(anonymity), 전염성(contagion), 피암시성(suggestibility)으로 설명한다. 거리에서 고함치는 군중의 함성을 듣다 보면 그 무리에 합세하고 싶은 일종의 군중심리의 최면 현상이 나타난다. 정치인들은 이 특징을 잘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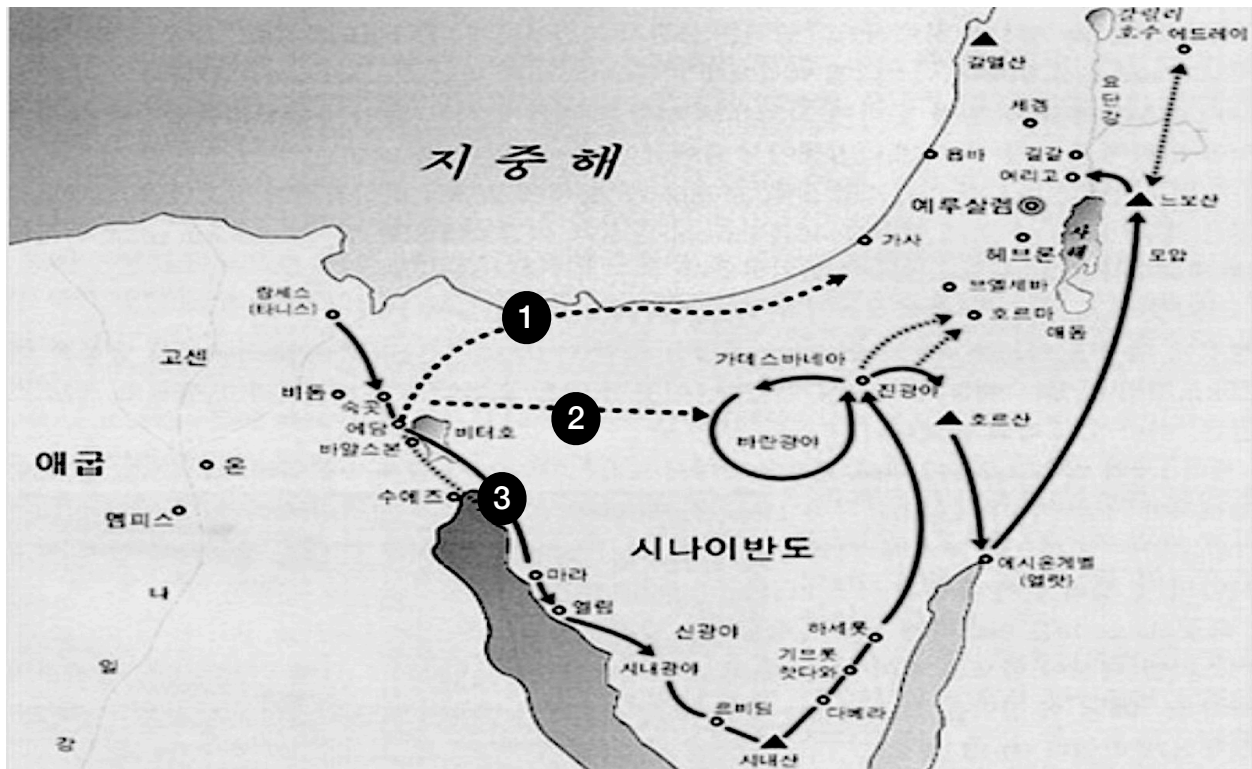


그러나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군중이 아니라 군대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며,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고 하시며 군사의 무기인 검(말씀)을 주신다. 이 세상은 타락(창3:15) 후, 놀이터가 아닌 전쟁터가 됐다. 따라서 교회는 군중이 아닌 군대를 양육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 약속의 땅으로 가는 세 가지 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후, 곧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3가지 길이 있었다.

- ① 해안 길: 이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로써 가나안까지 보름이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길은 중요한 무역로(Via Maris)였기에 아니라 해안가에 거주하는 블레셋의 군대를 마주칠 위험이 크다.
- ② 중간 길: 바란광야를 가로질러 네게브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 ③ 광야 길: 시나이반도 남단까지 내려갔다가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있는 왕의 대로'를 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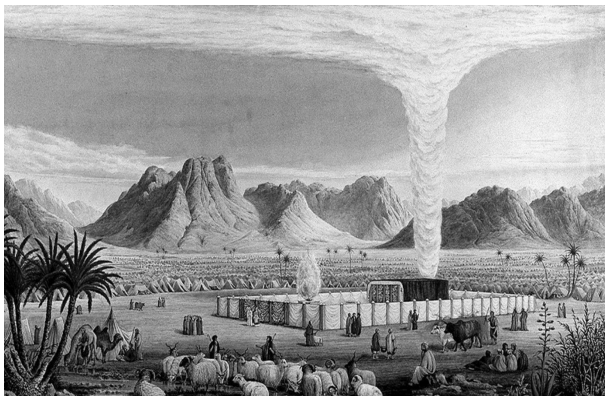
이 길들 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가?

“홍해의 광야 길로 ② \_\_\_\_\_ 백성을 인도하시매...” (w. 17, 18)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의 상태와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항복을 얻어 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충돌을 피하게 하셨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전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르고 가까운 길이 아닌 더디고 먼 곳으로 우회경로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하여서 저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셨다. 결국 이스라엘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 갔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떨쳐 버려야 할 애굽의 문화, 세속의 때가 짙게 묻었기 때문이다.

## 인생의 광야에서도 앞서 가시는 분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 아침에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호와의 군대다운 모습을 갖추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가시며 ... (w. 21-22)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길이 되어 주셨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③ \_\_\_\_\_ 으로, 밤에는 ④ \_\_\_\_\_ 으로 인도하셨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시대 (the age of uncertainty) 속에 사는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인도하신다. 주님과 동행하는 힘찬 믿음의 행진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

## [적용과 기도]

❖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군대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무리 중 하나로 **방관자적**인 삶의 태도가 아닌, **부름 받은 군사와 같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길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눈에 좋은 길을 택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때론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우리 보다 앞서 가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다함께 기도합니다.